

제1절 구석기시대 유적과 유물

1. 개관

우리나라의 구석기시대는 약 100~70만년을 전후하여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구석기인들의 흔적은 주요하천과 해안선을 따라 한반도 전역에서 1,000여 곳의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 주요유물로는 주먹도끼, 찌개, 여러면석기, 찌르개, 뚜르개, 새기개, 밀개, 굽개, 스펀지찌르개, 쪼돌날몸돌, 흙날, 망치 등이 있다.

경북·대구지역에서는 아직 전기 구석기유적이 발견된 적은 없으며, 모두 중기와 후기구석기시대의 유적이다.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으로는 상주 신상리, 안동 마애리, 김천 은기리, 성주 관화리 등이 있으며, 최근 들어 많은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는 추세이다.

울진지역에서는 아직 발굴조사된 유적은 없지만 북면 주인리 석수동에서 주먹도끼, 굽개, 밀개, 흙날석기 등의 유물이 채집된 바 있다. 이 유적은 유물의 제작기법 등을 통해 12만년~4만년 전의 것으로 편년되어 늦어도 이 시점에는 울진지역에 구석기인들이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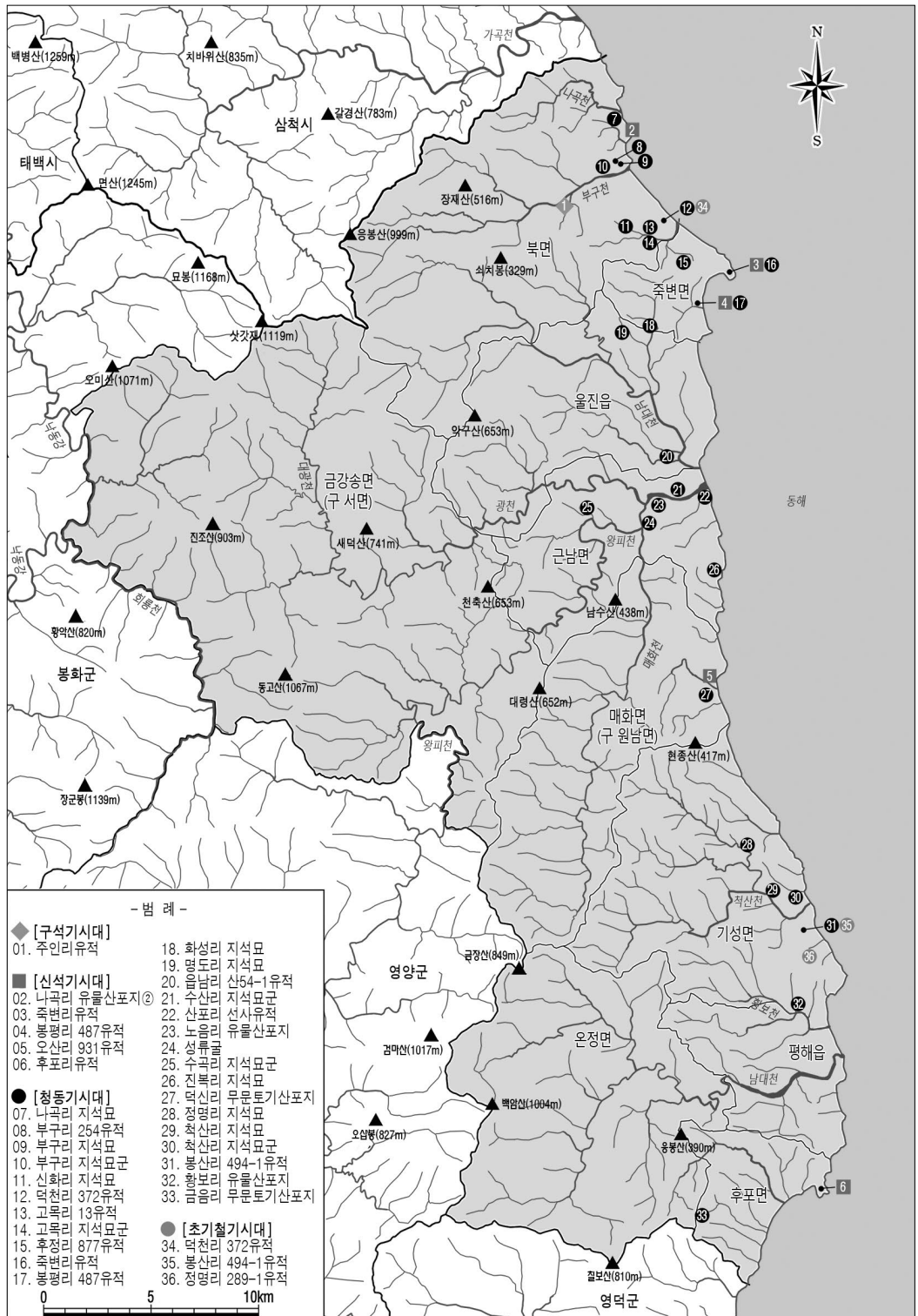
2. 유적과 유물

1) 울진 주인리유적(蔚珍 周仁里遺蹟)⁵⁹⁷

북면 주인리 석수동마을 일대에 위치한다. 울진 죽변면에서 삼척방면으로 7번 국도를 따라가면 울진군 북면에서 부구천을 가로지르는 부구대교가 나온다. 이 다리에서 내륙방향으로 덕구온천으로 들어가는 917번 지방도를 따라 약 2km 들어가면 주인교에 이른다. 구석기 유물이 산포하는 곳은 주인교의 동남쪽 논 일대로 낮고 완만하게 경사진 단구면이다. 소규모로 발달한 하안단구는 남향으로 앞으로는 소규모 하천인 부구천이 흐르며, 배후로는 급경사의 산지가 이어지는데, 해발 998.5m의 응봉산과 연결된다.

현재 단구의 상면은 논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단구의 높이는 10m 내외로 단애면에서 자갈층의 일부 확인된다. 유물은 이 자갈층과 위에 형성된 적갈색의 찰흙층에서 확인된다.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으로 주먹도끼, 굽개, 밀개, 흙날석기 등이 채집된 바 있다. 이 유물들은 제작기법 등을 통해 12만년 ~ 4만년 전의 것으로 편년되었다.

597. 홍영호·김상태, 2001, 「경북 동해안지역의 새로운 구석기유적」『한국구석기학보』3, 한국구석기학회 ; 蔚珍郡·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4, 『文化遺蹟分布地圖』蔚珍郡,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67쪽



<그림 108> 울진군 선사유적 분포도